

## 고용노동부, 현대엔지니어링(주) 본사·현장 기획감독 착수

- 현대엔지니어링(주)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 25개소 긴급 산업안전감독 실시
-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, 4월 한 달간 안전실태 중점 관리

3.25.(화) 현대엔지니어링(주)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,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(주)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\*가 연속하여 발생했다.

- \* (2.25.) 경기 안성시 세종-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붕괴사고(사망 4명, 부상 6명)
- (3.10.)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추락사고(사망 1명, 부상 1명)
- (3.25.)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달비계 작업 중 사고(사망 1명)

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.

또한,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(주)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(주)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%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. 앞서, 고용노동부는 세종-안성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(2.25.) 직후, 2.28.부터 3.21.까지 현대엔지니어링(주)이 시공하는 도로·철도·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한다.

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. 4월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1천 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할 계획이다. 감독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·사법 조치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효정	(044-202-8935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김원호 박승현	(044-202-8936) (044-202-8940)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	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대경	(044-202-8953)

